

의료는 국가 미래 핵심전략산업이다



글·유 태 전 |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난해 말 재미한 인의사회 총회 참석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산업 육성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약 400여명의 회원과 한국에서 약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팜스프링 휴양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의료자본의 글로벌화 등 두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활약하는 재미의사는 약 5,000여명인데 비해 재미 1.5세와 2세 의사는 15,000여명으로 3배가 넘었으며 내년엔 취임할 회장과 임원진이 모두 한인 2세로 선임됐다. 미국 각지에서 한인 2세 의사의 활약상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미국, 특히 LA 등지 병원과 부동산을 선전하는 국제적인 부동산컨설팅 활동이 활성화되어 미국병원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

무한경쟁시대인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산업은 IT, BT(생명과학)산업과 의료산업으로 이미 선진국은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보다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동남아만 보더라도 태국은 의료산업 등에서 연간 2조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등 각국이 앞다투어 외국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산업은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투자 및 정부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의료업 종사자는 이미 45만명을 넘어섰고, 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업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종사자가 약 10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연관관계가 있는 산업을 포함한다면 의료는 국민 건강보장, 복지 측면만이 아닌 「의료 산업」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보건의료는 이미 산업으로 인식된지 오래이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각종 육성지원책으로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

비 비중이 지난 85년 3.12%이던 것이 2001년 기준 6.1%로 1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8.4%에는 크게 미달하며 미국 13.1%, 독일 10.6%, 프랑스 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에는 의료업을 자원소비가 많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인식했으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산업의 GDP 점유비율이 10%에 이르고 전체 근로자 중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비율은 그 절반 정도인 6%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장차 경제성장과 고용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육성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소득 2만불로 선진국에 진입하느냐의 여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 진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GDP의 1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시장을 정상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조만간 의료시장의 개방과정에서 국내 의료시장이 오히려 선진 외국의 각축장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외국환자 유치 등 의료의 산업화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아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 큰 정치를 하실 분의 소신으로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의료산업 육성 발전 지원책 규제완화 병행

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의료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산업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첩경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수행이다. 따라서 병·의원 등 의료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며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나 법규를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야하며 영리법인 허용과 세계계선은 물론 재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비용이 80%에 육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국공립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체제 아래 민간 병·의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진료비 삭감, 심지어 의료인 처벌 강화 등 오히려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의료산업이 우리나라 핵심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배려와 지원이 따르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2005년은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일궈가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2005